

광주·전남, 상위권 유지...목표 달성 청신호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종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광주·전남 선수단이 6일에도 20여개의 금메달을 따내 목표달성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이날 오후까지 광주와 전남은 각각 종합순위 5위와 3위에 올라있다. 광주는 대회 전 안정적인 한자리 등수를 목표로 내걸었다. 대회가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현재의 페이스를 꾸준히 유지한다면 목표 달성은 무난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오후 6시 현재 금메달 54개, 은메달 57

광주, 총 득점 8만2194점 5위
전남, 9만7311점 ... 3위 무난

개, 동메달 41개로 총 15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총 득점 8만2194점을 기록하고 있다. 6일에만 금메달 8개와 은메달 12개, 동메달 8개를 목에 걸었다. 특히 사격의 박동안이 5관왕에 올라 지역의 명예를 드높였다. 박동안은 6일 사격-혼성 50m소총 복사 R9 단체전 SH2(선수부)에 김근수, 박승우, 임주현과 함께 나서 함께 1822.4점을 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수영종목 남자 배영 50m S2에 광주시장애인 수영연맹 정봉기가 나서 51초27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게이트볼서 2위, 당구 단체전서 2위를 달성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는 각 종목 2023년 국내대회 중 최고 성적이다. 이 외에도 불링에 서영춘-문정완(광주시장애인 불링협회)이 합작해 남자 2인조 DB 금메달을 수확했다. 개최지 전남도 연일 금수확에 성공하고 있다. 전남은 당초 목표로 삼았던 5위보다 높은 3위에 올라 기대 이상의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전남 선수단은 이날에만 금메달 15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11개를 수확하는 등 대회 기간 금메달 34개, 은메달 60개, 동메달 64개로 총 메달 158개 9만7311점으로 개최지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다. 전남은 육상에서 3개의 메달을 따냈다. 여자 1500m T20에서 박영순(덕수학교)이 5분29초41로 가장 먼저 테이프를 끊었다. 남자 1500m T12에 나선 김정하(전남장애인육상연맹) 역시 5분8초52로 도착점에 제일 먼저 도착했다. 지난 4일 남자 5000m T12 AFP에서 금메달을 딴 김정하는 이날 금메달로 2관왕에 올랐다. 여자 멀리뛰기DB의 장지현(전남장애인육상연맹) 역시 4m41을 뛰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수영에서는 여자 자유형 400m S12에 나선 최길라(전남장애인수영연맹)가 7분44초71로 금수확에 성공했다. 최길라는 지난 3일 여자 자유형 200m S12에 출전해 3분36초57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바 있다. 이번 메달 획득으로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수영 여자 자유형 400m S14에 나선 변경효(한국농어촌공사)도 6분51초81로 금메달을 안았다. 탁구에서 이창식(완전 KDN), 고희영(한국농어촌공사)이 혼성복식 체급 종합14 결승서 광주를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탁구에서 전남이 금메달을 목에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김하성, 한국인 최초 MLB 골드글러브 수상

유틸리티 야수 부문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사진)이 역대 한국인 선수로는 최초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포지션별 최고 선수에게 주는 골드 글러브를 수상했다.

김하성은 6일(한국시간) 발표된 2023 MLB 양대리그 골드 글러브 수상자 명단에서 내셔널리그 유틸리티 야수 부문 황금 장갑 수상자로 호명됐다.

만능 야수를 뜻하는 유틸리티 야수 부문은 상은 2022년에 처음 제정됐고, 김하성은 최종 후보에 오른 무키 베츠(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올해 3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한국 야구대표팀에서 호흡을 맞춘 한국계 토미 에드먼(세인트루이스 카디날스)을 따돌리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하성은 주 포지션인 2루는 물론 3루, 유격수 등 1루를 제외한 전 내야 포지션에서 견고한 수비를 뽐내 만능 야수 부문에서 코리안 빅리거로는 최초로 황금 장갑을 끼었다.

김하성은 지난해 유격수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다가 수상을 놓친 아쉬움을 1년 만에 풀었다.

특히 아시아 선수는 빅리그 내야에서 자리를 잡기 어렵다는 선입견을 지우고 수비의 제왕으로 인정받은 터라 더욱 값지다.

샌디에이고 구단이 올해 산티로 보하르츠를 영입하면서 유격수를 보하르츠에게 내주고 2루로 이동한 김하성은 올 시즌 2루수로 101경기, 3루수로 30경기, 유격수로 18경기에 출전해 파드리스의 내야를 지켰다.

MLB닷컴은 김하성이 올 시즌 샌디에이고에서 2루수, 유격수, 3루수로서 또 한 번 내야수의 다재다능함을 뽐냈으며 수비수가 얼마나 실력을 막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인 DRS(defensive runs saved)를 볼 때 김하성은 2루수로 10, 3루수와 유격수로는 3개씩 모두 합쳐 16을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2루수 DRS 수치는 올해 내셔널리그 2루수 골드글러브 수상자인 니코 호너(시카고 컵스·12) 다음으로 리그에서 높았다고 덧붙였다.

호너는 2루수 부문 골드 글러브 최종 후보에 오른 김하성과 브라이슨 스톱트(필라델피아 필리스)를 제치고 리그 최고 2루수로 공인받았다.

골드 글러브 수상자 선정 방식을 보면 김하성의 수비 활약상이 빅리그 전체 감독, 코치들의 뇌리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골드 글러브상 주관사인 야구용품 제작업체 롤링스는 30개 구단 감독과 팀당 최대 6명으로 이뤄진 코치진의 투표, 미국야구연구협회의 수비 지표를 합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코치진의 투표 비중이 75%를 차지해 통계 수치인 수비 지표(25%)를 압도한다. 통계 수치상에서 김하성이 경쟁자들에게 약간 밀렸더라도 실제 경기에서 함께 호흡하는 다른 팀 지도자들이 김하성의 수비 실력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는 우익수 부문 골드 글러브 수상자로 선정돼 김하성과 더불어 팀을 빛냈다. /연합뉴스



광주 사격 선수단이 6일 금메달을 획득한 후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박승우, 박동안, 임주현.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광주 사격팀 선전...박동안 5관왕 '명증'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한 광주 사격팀이 종합 순위 상위권 유지에 힘을 보태며 선전하고 있다. 특히 박동안은 6일에도 금메달을 추가, 5관왕에 오르며 새로운 스타 탄생을 알렸다.

박동안은 이날 사격-혼성 50m소총 복사 R9 단체전 SH2(선수부)에서 김근수, 박승우, 임주현(이상 광주시장애인사격연맹)과 함께 나서 함께 1822.4점을 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박동안은 전날까지 사격 혼성 공기소총 복사R5 개인전, 혼성 공기소총 복사 R5 단체전, 혼성 공기소총 입사 R4 개인전 SH2, 혼성 공기소총 입사 R4 단체전에 출전해 4관왕에 올랐다.

사격팀은 지난 4일 혼성 공기소총 입사 R4와 복사 R5 단체전에서 임주현, 박승우, 박동안, 김근수가 각각 1890.8점, 1907.8점으로 1위를 차지했

다. 복사 R5(1907.8점)에서 대회신기록을 2년 만에 경신한 것이다.

이로써 광주시 사격팀은 금 5개 은 3개 동 2개 총 10개의 메달을 수확했으며 참가 전 종목 메달 석권의 진기록을 세웠다. 선수단은 7일에도 경기에 참가해 장애인체전 사상 최고의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김근수 광주 사격팀 감독은 "지난해까지 선수로 뛰다가 처음 감독을 맡아 부담도 많았는데 선수들이 잘해줘 놀라운 성과를 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수들을 믿고 지도했는데 잘 따라 줬 좋은 성적을 냈고, 지난대회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총점을 보낼 수 있어 무척이나 기쁘다"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 KIA 정해영·이의리·최지민·김도영 참가



정해영



이의리



최지민



김도영

2023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APBC)에 나서는 KIA 타이거즈 정해영·이의리·최지민·김도영이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나섰다.

APBC 대표팀이 6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소집 훈련에 돌입했다. 대표팀은 오는 13일까지 대구에서 훈련과 연습경기를 하면서 호흡을 맞추게 된다.

최종 엔트리 26명에 포함된 KIA 정해영·이의리·최지민(이상 투수), 김도영(내야수)도 16일 개막하는 대회를 위해 스파이크곤을 조여왔다.

한국시리즈에 출전하는 LG 트윈스의 투수 정우영·내야수 문보경, KT 위즈의 투수 박영현과 부상

중인 KT 강백호는 이번 소집훈련에서 제외됐다.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플레이오프까지 강행군을 펼친 NC 다이노스의 투수 김영규, 포수 김형준, 내야수 김주원은 7일부터 대표팀 훈련에 참가한다.

7일부터 시작되는 한국시리즈 일정 등에 따른 엔트리 변동도 있을 전망이다. 이에 대비해 예비 엔트리 20명에 포함된 SSG 조병현·두산 이병헌·상무 김태경(이상 투수), 상무 허인서(포수), 상무 한태양·롯데 나승엽·한화 문현빈(이상 내야수) 등 총 7명이 대구 캠프에 합류했다.

7명의 예비엔트리 선수들은 대표팀과 훈련스케

줄을 소화할 예정이다. 대표팀 최종엔트리는 14일 까지 예비 엔트리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한편 APBC에는 한국, 일본, 대만, 호주 4개 나라 유망주가 참가해 일본 도쿄돔에서 경기를 펼친다. 폴리그를 통해 1·2위에 오른 팀이 우승컵을 놓고 결승에서 맞붙는다.

한국은 16일 오후 12시 호주와 대회 첫 경기를 치른 뒤 17일 일본, 18일 대만과 대결한다. 일본, 대만과의 경기는 모두 오후 7시에 시작된다.

대회 결승전은 19일 오후 6시에 진행되고, 3·4 위전은 같은 날 오전 11시 치러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023광산구청장배 수중·핀수영대회에 참가한 선수와 협회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수중·핀수영협회 제공>

광주 광산구청장배 수중·핀수영 대회 70여명 참가

광주시 광산구 수중·핀수영협회(회장 민기홍)는 지난 4일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에서 생활체육 동호회원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3광산구청장배 수중·핀수영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33수중달리기, 노보중성부력, 스노클링게슈, 토기와 거북이 등 총 4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참가선수들은 색다른 재미로 가득찬 이번 수중·

핀수영대회에 높은 만족감을 보이며 지속적인 대회개최가 이어지기를 희망했다.

민기홍 회장은 "지역에 국제급의 첨단시설을 갖춘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이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수중스포츠를 체험하고 있다"며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